



역RP 거래로 시중 단기자금 급증

이소양 연구원

- 10월 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(역RP)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에 총 2,650억 위안의 단기자금(7일물 1,650억 위안 및 28일물 1,000억 위안)을 공급하였음.
 - 이번 공급은 일일 자금 투입 금액으로는 지난달 25일 2,900억 위안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이며, 지난 6월 말 이후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은 2조 6,83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음.
 -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중금리를 낮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여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분석함.
 -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주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2개월 연속 50을 하회한 49.8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을 보이고 있음.
 - 반면,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자금 공급이 지난달 발행됐던 역RP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함.
 - 중국 중앙은행은 9월 말에 연후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역RP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에 3,600억 위안을 공급하였으며, 역RP 만기 도래 규모는 이번 주 1,650억 위안에 달함.
 - 한편,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2% 이상 급등하였으며, 호주 S&P/ASX 200지수도 0.5% 상승해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4,505.3을 기록함.
- 10월 중에 중국 중앙은행은 재정자금 및 은행 지급준비금 납부와 역RP 및 채권 만기 도래의 압력 하에서 금융시장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한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.
 - 10월에 납부해야 할 재정자금 및 지급준비금은 각각 3,000억 위안 및 2,000억 위안에 달하며, 향후 2주 내에 역RP 및 채권 만기 도래 규모는 6,000억 위안에 이룸.

(신화망, 10/09, WSJ, FT, 10/10 등)